

제11권 11호

2021. 5. 24~2021. 6. 6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과 국내 기업의 대응                                   |
| 이슈분석    |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                                    |
| 금융경영브리프 |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강화<br>日 금융업권의 정보은행 사업 가시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장단기 금리차 확대 속 5월 금통위 주시<br>외 환: 인플레이션 논란發 변동성 확대에 유의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 이슈분석

연구위원 백종호(jongho.baek)

####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이기홍(kihong.lee)  
연구원 김기태(kimkitae)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lee89)  
외 환 |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 금융지표

연구원 권용석(ys.kwon)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과 국내 기업의 대응
- 04 **이슈분석**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강화  
                                  日 금융업권의 정보은행 사업 가시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장단기 금리차 확대 속 5월 금통위 주시  
                                  외 환: 인플레이션 논란發 변동성 확대에 유의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과 국내 기업의 대응\*

오 유 진 연구위원(yujin.oh@hanafn.com)

첨단 산업에서의 미·중 갈등 심화 및 각국의 경제 민족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과 EU 등은 아시아 위주로 구축된 첨단 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 및 지역화, 현지 조달 등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각국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 우위 확보로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다자체제 중심의 자유 무역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치에 맞게 분산된 대응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분열이 개별 국가의 경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주요국들은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첨단제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대부분의 제품을 국내 혹은 자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부와 위주로 중국을 견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경쟁을 중심으로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및 최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등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제조’이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가져와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의 인프라 지출 계획 중 제조업 부문에 3,00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반도체 연구 및 생산에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EU도 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만들겠다고 독일 및 프랑스 주도로 최대

미국과 EU는 아시아 위주로 구축된 첨단 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함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5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우한홍신반도체제조(HSMC) 및 칭화유니 등 반도체 기술 확보를 추진하던 핵심 기업들의 실패 및 미국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가 강력한 반도체 육성 의지를 가지고 주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도 EU, 미국 등이 강력하게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작년 10월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과 희토류 등 30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유럽 원자재 동맹’을 출범시켰다. 주요 EU 완성차 기업들도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어 EU 배터리 공급망 구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EU는 환경규제를 공급망 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2024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생애주기 평가(LCA) 등을 이용해 해외 부품·소재의 역내 공급망 침투를 차단하는 한편, 환경적·기술적으로 선진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미국은 화석연료를 중요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유럽과 중국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리고 자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 反中전선 점차 확대되며 ‘China-Free’ 공급망 구축 움직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미국 외 지역으로 확대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이 미국을 넘어 쿼드국가(미국, 일본, 호주, 인도), EU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이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명령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작업은 6월초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해당 공급망에서 위협이 확인되면 공급 정책 재수립, 미국 내 생산 장려를 위한 금융 인센티브, 관세부과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추진되며 공급망 재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호주, 인도는 지난 4월 27일,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3개국 간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공식적으로 런칭했다.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극심한 경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탈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국경에서의 충돌로 중국 불매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지속적인 대립을 빚어 왔으며 미·중 갈등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3개국은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무역 및 투자 등의 분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EU도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난 2월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7년간의 협상 끝에 작년 말 중국과 맺었던 투자협정의 비준을 중단했으며, EU의 주요 전략자산을 국가 보조금을 받는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 기술우위 확보 및 다자체제 기반의 분산 전략으로 대응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가 비용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각 국의 경제 민족주의가 더해지며 현지기업 중심의 자국 공급망 구축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분열에 대응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 및 지역화, 현지 자원조달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 간 공급망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이 각 국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우위이다. 주요국들이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 공급망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지 공급망 구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수다. 공급망 분열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 우위는 공급망 분열로 인한 위험을 낮추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미국과 EU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체제로 훼손된 올바른 무역 규칙의 재정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미국, EU 등을 비롯한 세계가 인정하는 규칙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중·EU 등 세계 각 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자체제 중심의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간 경쟁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이익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기업별 분산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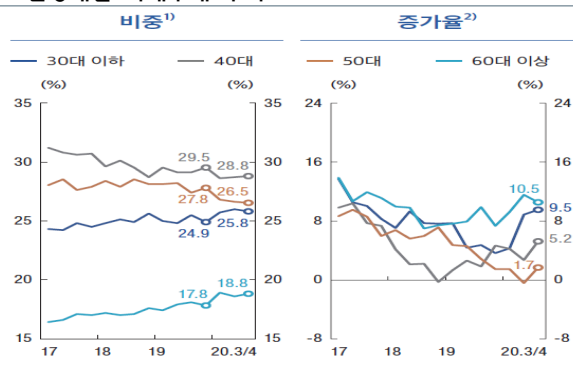
백 중 호 연구위원(jongho.baek@hanafn.com)

코로나19 이후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 열풍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악화된 고용상황과 소득감소로 인해 취약 청년층은 금융접근에서 소외, 다중채무, 불법대출 등 채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 차단의 상반되는 목표를 분리하여 대처하고, 금융업권은 리스크관리와 병행하여 청년층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으로 청년층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 증가로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부채가 급증

-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차입 확대와 더불어 레버리지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청년층 부채는 타 연령층 대비 빠르게 증가
  - '20.3분기 기준 청년층 대출(409조원)의 64%를 주택담보(173조원)와 전세자금(88조원) 대출이 차지하는 등 주택관련대출이 청년층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
  -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청년층이 차입을 통하여 주택매입을 확대하면서 30대 이하의 부동산 매매가 타 연령대비 높은 수준(30대이하 37%, 40대 27%, 50대 18% 순)
- 이에 따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및 1인당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도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 '20년말 기준 전년대비 연령대별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 상승폭(%p) : 20대 이하(23.8), 30대(23.9), 40대(13.3), 50대(6.0), 60대 이상(-3.2)로 청년층의 상승폭이 큼
- 또한, 신규차주 중 청년층 비중이 차주수, 부채액 기준 모두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유지

#### ■ 연령대별 가계부채 추이



주: 1) 전체 부채액 대비 연령대별 부채액 비중  
2) 전년동기대비(2분기 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 ■ 신규차주 연령대별 비중

(단위: %)

	연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차주수 기준	'17	49.5	19.4	16.9	14.2
	'18	51.9	17.0	16.6	14.4
	'19	56.4	15.2	15.2	13.2
	'20.9	58.4	14.9	13.8	12.9
부채액 기준	'17	42.4	23.4	19.5	14.7
	'18	46.5	21.1	17.2	15.2
	'19	52.4	17.9	15.9	13.8
	'20.9	55.3	17.7	14.1	12.9

자료 : 한국은행



■ 위험자산 투자가 청년층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채무상황 악화 문제는 소외

-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급락 이후 일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빚투’와 ‘영끌’ 등 레버리지 활용, 주식투자를 확대하면서 비정상적 자산가격 상승 확산
  - 작년 상반기 기준 6개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계좌 723만개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의 계좌였고, 2030세대의 신용공여 잔액은 '19말 대비 55%나 증가
- 또한, 청년층이 타 연령층 대비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공격적으로 투자 확대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으로 20대가 32.9%, 30대가 29.1%에 달해 2030세대가 암호화폐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청년층 부채 문제가 투기문제와 동일시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청년 ‘실신세대’의 실상은 관심에서 소외

■ 생계자금 위한 2금융권 대출 등으로 다중채무자로 전락, 청년 신용불량 문제 악순환

- 코로나19 이후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연기, 청년노동자의 무급휴직, 해고, 프리랜서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득이 급감
  -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3만명이 감소한 376.3만명으로 코로나 19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며, 청년실업률은 9.0%,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함
-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양극화를 심화
-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취약 청년층이 은행 이용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생계자금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2금융권 대출은 물론, 다중채무도 급증세
  - 작년말 20대의 카드로 잔액은 전년(9,630억원) 대비 19%나 증가한 1.1조원, 리볼빙 서비스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6.8%를 기록

■ 연령별 카드로/리볼빙 잔액 추이 (단위: 천억원, %)

카드로	2019	2020	증가율
20대	9.6	11.4	18.5
30대	50.8	51.3	1.1
40대	101.3	109.7	8.2
50대	85.3	96.8	13.4
60대이상	44.0	51.3	16.6
합계	291.1	320.5	10.1
리볼빙	2019	2020	증가율
20대	3.7	4.0	6.8
30대	15.1	14.1	-6.2
40대	18.1	17.5	-2.9
50대	10.2	9.8	-2.9
60대이상	3.6	3.9	6.7
합계	50.8	49.2	-3.2

자료 : 금융감독원/장혜영 의원실

■ 연령별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추이 (단위: 조원, %)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8.6	112 (16.2)	157 (7.8)	135 (6.5)	52 (13.0)	456 (10.0)
'18.12	116 (10.5)	154 (-0.3)	141 (8.9)	55 (10.6)	466 (6.2)
'19.6	112 (0.1)	158 (1.0)	145 (7.5)	57 (8.4)	472 (3.6)
'19.12	112 (-3.2)	164 (6.6)	146 (3.4)	57 (3.4)	479 (2.8)
'20.6	119 (6.1)	161 (1.7)	143 (-1.4)	63 (10.9)	486 (2.9)
'20.12	130 (16.1)	169 (3.0)	151 (3.5)	67 (17.6)	518 (8.0)

자료 : 한국은행/윤창현 의원실

■ 코로나19 이후 취약 청년층 대상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도 급격히 확산

- 청년 대상 정책 금융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시 고금리 대출상담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자 광고 노출도가 많아 악성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최근에는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 대출 이력을 조작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이 확산세
  -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2,000만원 이하)이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
- 비공개 커뮤니티, SNS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범죄수법도 기존 사기대출에 다단계 판매와 취업사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추세
  - 스마트폰 등을 할부 구입 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 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게임 아이템 구입후 현금화하는 '소액결제 깡' 등 신종 서비스로 진화

■ 재무건전성 악화로 재기가 불가능해진 취약 청년층의 부실 본격화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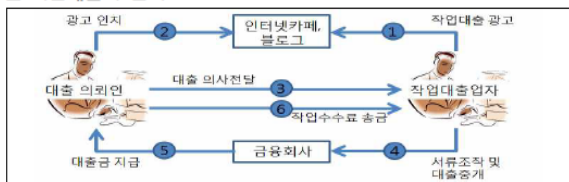
- 채무로 한계에 봉착한 청년층의 개인회생신청이 타 연령 대비 빠르게 증가
  - '19말 대비 '20.6월 개인회생 접수 증가율(%) : 20대 남성(29.8), 20대 여성(24.7)
- 이에 따라 정부는 햇살론 youth 특례보증 등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유사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될 조짐
  - '20.8월에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심사를 도입
-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더불어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청년층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등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상환능력 개선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

■ 작업대출 유형 및 절차

□ 작업대출의 유형

-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 작업대출의 절차



자료 : 금융감독원

■ 햇살론17 대출규모와 대위변제율 (단위: 건, 억원, %)


	건수	금액	대위변제율
'20.3	13,924	924	0.2
'20.4	12,615	820	0.6
'20.5	10,999	706	0.8
'20.6	11,598	740	1.3
'20.7	11,379	713	1.8
'20.8	9,852	623	2.4
'20.9	10,221	646	3.4
'20.10	12,545	841	4.2
'20.11	14,634	1,109	5.0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윤창현 의원실

## ■ 정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 차단, 2가지 상충되는 목표달성 위해 투트랙전략 필요

- 최근 발표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적 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위험자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일부 가계부채 안정화 기대
- 다만, 취약 청년층의 부채가 코로나19 이후 경제난 가중에 따른 ‘부채 돌려막기’로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정상적 투기 수요와는 별개의 접근 필요
  - 저소득청년, 사회초년생을 위해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 또한,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청년들이 불법대출 등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대상 채무조정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용컨설팅 강화, 채무조정 기회 확대, 이자/원금 감면 및 면책 등 중장기 채무관리 방안, 작업대출 등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점검·관리 강화
- 취약 청년층 대상 일방적인 정책서민금융 등의 자금지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보다 중요
  - 청년층의 금융자립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대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청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지성(financial literacy)의 개발·축적을 지원

## ■ 금융업권은 리스크관리와 병행,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자립을 위한 기회 제공

- 금융업권은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층 대상 중·저금리 융자상품 제공을 적극 확대할 필요
  - 정부는 햇살론 بانک과 햇살론 카드 등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
- 또한,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 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적금, 연금 및 보험 등 안정형 상품을 통한 재산 형성프로그램 지원이 요구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이 금융상품 해지로 생계비를 충당, 미래에 대비하고 준비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
- 한편, 금융권은 전반적인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수행하여 해당 차입금이 비정상적 투기로 유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 관리
  - 여신관리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여 대출이 용도 외로 운용,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에 투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 특히, 차주별 DSR 시행 이후 여신 공급 제한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다중 채무자의 취약성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 업권별로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 필요
  - 비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강화

이 기 흥 수석연구원(kihong.lee@hanafn.com)

빅테크기업은 주력사업에 지급결제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 기업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를 기반으로 혁신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과 협업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 빅테크기업이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 생태계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sup>[1]</sup>

-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 생태계에 지급결제시스템을 추가, 고객에게 편의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 진출을 시작
  - 세계적인 빅테크업체인 미국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와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는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
- 이후 지급결제시스템 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기존 금융업계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
  - Gartner는 2030년까지 현재 은행의 80%가 폐업하거나 합병될 것이라고 예측

### ■ 빅테크기업은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성장<sup>[2]</sup>

- 빅테크기업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
  - Uber는 390만명 운전자에게 차량 구입이나 수리를 위한 운전자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우버 직불카드로 결제시 즉시 정산 받는 서비스를 제공
  - Klarna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Buy Now, Pay Later'를 통해, Robinhood는 주식 초보자 대상 UI/UX를 크게 개선한 디지털 투자 플랫폼을 통해 MZ세대를 확보
- 기존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 Amazon은 쇼핑을 끝내고 문 밖으로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Just Walk Out' 기술을 활용해 계산대와 계산원이 필요없는 무인점포 Amazon Go를 런칭


[1] The Entry of BigTech into Finance and the Future of Blockchain, kaist, 2019.12

[2] Disrupting Retail Banking: The Era of BigTech, Globaldata, 202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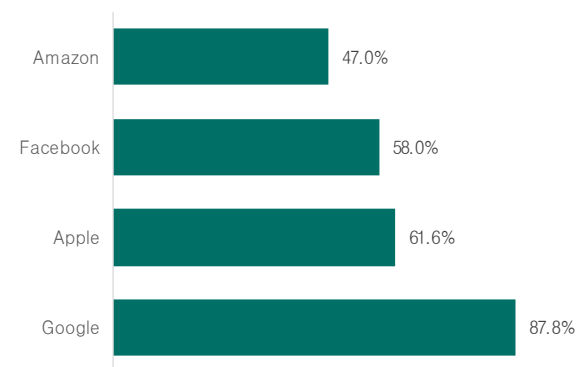
■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반독점 규제 이슈가 부각<sup>3)</sup>

- 미 하원은 GAFA의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기업이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
- 독자적으로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90%이상을 점유하며 독과점 논란을 야기
  - '19년 기준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55.4%)와 위챗페이(38.5%)가 9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수가 9억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
  - 지난 1월 중국 중앙은행의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1개 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규정

■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

-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해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독과점 이슈가 크게 부각
- 이와 관련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규제·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2월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금융위원회에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를 목표로, ‘양방향(two-way)’ 제도개선을 검토
-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협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필요 

■ 미 4대 빅테크업체 GAFA의 시장 점유율



주 : 2020년 기준  
자료 : Statcounter, Statista

■ GAFA에 대한 반독점 규제 조치

주체	대상	내용
하원	페이스북	SNS 시장 독점화 조사
	구글	온라인검색시장 독점화 조사
	아마존	전자상거래시장 독점화 조사
	애플	모바일 OS시장 독점화 조사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 (구조적 해소책 요청)
FTC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제기 (기업분할 요청)

자료 : 한국은행

3)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BIS, 2021.3

## 日 금융업권의 정보은행 사업 가시화

김기태 연구원(kimkitae@hanafn.com)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일본의 정보은행 서비스가 실증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업권은 타 업권 대비 정보은행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메가뱅크 그룹들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은행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 정식 서비스 출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국내 금융업권도 향후 취급할 비금융 데이터의 수집 영역과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필요하다.

### ■ 최근 일본에서 정보은행 서비스가 실증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출시되는 사례가 등장

-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시작된 日 정보은행 사업은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데이터를 신탁받아 필요로 하는 타 사업자에게 유통하고, 이와 관련해 수취한 대가를 소비자에게 환원
  - 한국과는 다르게 현재 건강·의료 정보 데이터를 제외한 비금융 데이터의 취급이 가능하며, 특정 사업자 및 서비스가 소정의 기준을 만족하였음을 인증해주는 ‘정보은행 인정(認定)’ 취득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음<sup>1)</sup>
- 최근 ‘DataSign’ 및 종합 광고 대행사로 유명한 텐츠 그룹의 자회사 ‘마이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이 ‘통상인정’을 받아 정보은행 서비스를 정식 출시
  - 이 외에도 아직 통상인정을 받지 않았으나, ‘미츠비시UFJ신탁은행’과 대형 유통 그룹 이온의 자회사인 ‘페리카포인트마케팅’도 올해 정보은행 서비스 출시

### ■ 정보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금융업권의 관심도 증가

-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정보은행 및 개인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19%p 증가<sup>2)</sup>
- 일본 금융업권의 정보은행에 대한 관심도는 타 업권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sup>3)</sup>
  - 2018년 정보은행 인정제도 시행 후 인정받은 7개 서비스사 중 2개사가 금융 분야
  - 2021년 4월 기준, 정보은행 인정 서비스에 관심·참여를 희망한 17개사 중에서도 금융 분야가 5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 ‘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2.0’, 日총무성, 2019.10.8.

[2] ‘令和2年 情報通信白書’, 日총무성, 2020.8.5.


[3] ‘情報銀行」認定状況について’, 일본IT단체연맹, 2021.4.13.



■ 실제 메가뱅크 그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은행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

-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신탁은행을 선두로 개인의 행동이력, 자산정보 및 주변 신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유통하는 ‘Dprime’ 서비스를 지난 3월 27일 출시
- 미쓰이스미토모금융그룹은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유통하는 정보은행 서비스를 규제 해제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출시할 예정<sup>4)</sup>
  - 2018년 계열 은행에서 오사카대학병원과 의료 데이터 정보은행 실증 사업 진행
  - 2020년 10월, 의료 내역을 관리하는 의료 벤처회사 ‘플러스메디’를 자회사로 인수
  -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은행의 개인 건강·의료 정보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예정<sup>5)</sup>
- 미즈호금융그룹은 합작사의 대안신용평가 기반의 간접 서비스 참여가 예상
  - 미즈호은행과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J.Score’는 개인의 생활 패턴, 성격 등 비금융적 요소를 통해 자체 신용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운영
  - 2019년 J.Score가 정보은행 P인정을 획득해 향후 정보은행으로 사업 확장 계획

■ 국내 금융사도 비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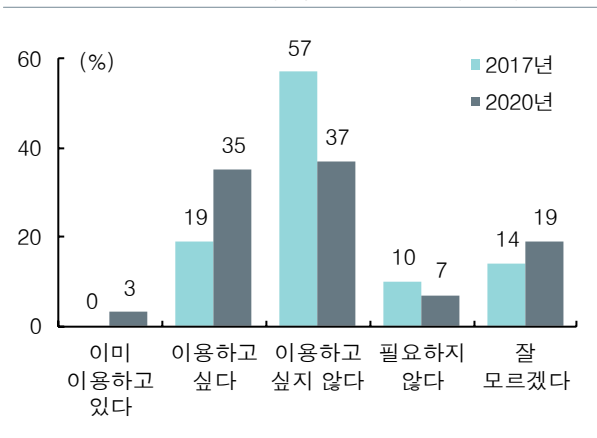
- 日 정보은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 출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국내 금융사도 향후 취급할 비금융 데이터 영역 선정과 수집 방법에 대해 장기 사업 계획 필요
  - 의료 정보와 같은 민감 분야는 가치가 높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취급 허가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 검토가 필요
- 타 경쟁사와의 사업 차별화를 위해 비금융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 정보은행 인정을 받은 서비스 목록(2021년 4월 기준)

사업자명	서비스명(분류)	인정공표일(분류)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데이터신탁」 서비스 (금융)	2019.6.26(P)
페리카포인트 마케팅	와타시포스트 (지역활성화)	2019.6.26(P)
J.Score	정보제공 서비스 (금융)	2019.12.25(P)
츄부전력 (中部電力)	MINLY (지역활성화)	2020.2.17(P)
DataSign	paspit (마케팅)	2020.3.12(통상)
마이데이터 인텔리전스	마이데이터뱅크 「MEY」 (마케팅)	2021.1.18(통상)
MILIZE	보험데이터뱅크 서비스 (의료·엘스케어)	2021.3.29(P)

주 : ‘P’는 서비스 출시 전 인정, ‘통상’은 서비스 출시 후 인정  
 자료 : 일본IT단체연맹(2021) 자료를 재구성

■ 일본 소비자의 정보은행 등의 서비스 이용 의향



자료 : 日 총무성(2020) 자료를 재구성

<sup>4)</sup> ‘三井住友Fが情報銀行事業に参入へ、医療データ管理 - 創業活用も視野’, Bloomberg, 2020.9.15.

<sup>5)</sup> ‘情報銀行に健康データ 政府、21年度後半にも解禁’, 닛케이, 2021.4.10.

## 금리: 장단기 금리차 확대 속 5월 금통위 주시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미국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에도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의 완화적 기조 확인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반면 국내 금리는 美금리 안정에 힘입어 장기물은 소폭 등락한데 반해 단기물은 위험회피수요 증가로 대폭 하락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지속 시 테이퍼링 조기 논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는 중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5월 금통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 ■ 글로벌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치적 이벤트 등으로 국가간 차별화

- 美 4월 CPI 급등으로 인플레 우려가 재부각되었으나, 중고차 구매 등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연준 위원들의 완화 기조 유지 발언으로 진정
  - 다만, 4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다수 위원이 양대 목표(고용·물가)가 빠른 진전을 보일 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
- EU는 백신접종과 경제활동 재개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3.7 → 4.2%), ECB는 인플레 압력에 대비한 PEPP(긴급자산매입) 조정 필요성 제기
-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고용지표 부진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으며, 독일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확대가 기대되는 녹색당이 선전하며 상승
  - 美/獨 국채금리(10Y, %): 1.60/-0.21(5.10일) → 1.69/-0.12(5.12일) → 1.63/-0.11(5.20일)


### ■ 국내 금리는 추가 재정지출 우려와 인플레이션 부담 등으로 장단기물간 금리차 확대

- 수출 호조(5.1~20일 일평균 +59%, YoY)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하고 소매판매 개선(4월 국내카드 승인액 +18%, YoY) 등 경제 회복세 강화
  - 4월 취업자수(65만명)는 6년 8개월래 최대 규모, 2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 흐름
- 한편, 코로나 손실보상법 도입 시 최대 8조원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소급적용 추진 시 지출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어 국채 발행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 국채 발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10년물은 미국 금리(10Y)가 1.6%대를 지속한데 힘입어 소폭 등락한데 반해, 단기물은 수요 급증으로 큰 폭 하락
  - 3년물 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리스크 회피 목적의 수요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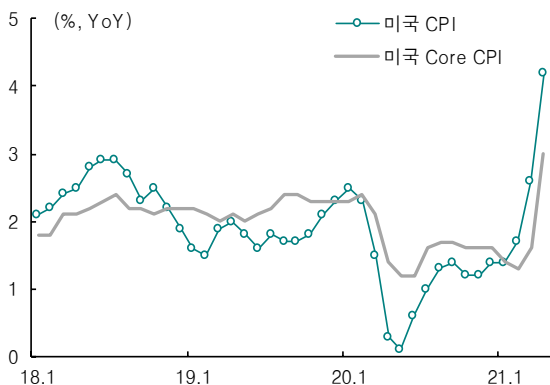
■ 미국의 물가 상승폭 확대가 지속될 시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논의 가능성에 유의

- 가파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4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월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
  - 지금까지 대다수 연준 위원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균등한 고용지표 회복을 강조하며 완화적 기조 지속 방침을 표명
- 5월 미국 CPI는 기저효과와 경제재개·부양책 효과로 상승폭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비용 상승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부각
- 특히, 원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측 압력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반한 수요측 압력이 지속될 시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4월 FOMC 의사록에서 고용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전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적될 위험을 언급하며 테이퍼링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유의

■ 5월 금통위에서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폭과 정책 스탠스를 주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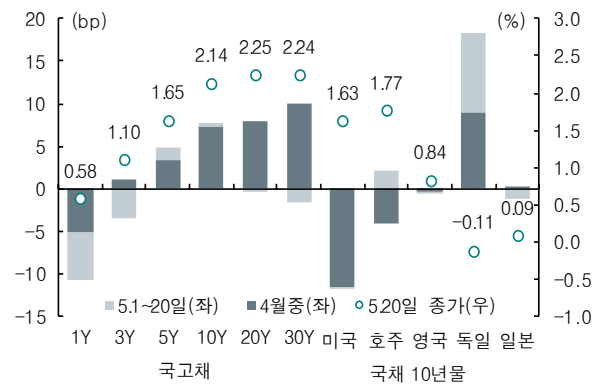
- 미국 금리는 상승요인 부각에도 원자재 가격 조정과 견조한 미국 국채 수요,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으로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
  - 특히 원자재 가격의 경우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급감 우려,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관리의지 표명 등으로 구리 등 금속류와 원유, 곡물류 모두 하락 조정
- 국내의 경우, 국고채 수급 불확실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증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5월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
- 특히, 5월 금통위에서 한은 수정 경제전망의 성장률 상향조정 폭과 GDP갭 플러스 전환시점 언급, 금통위 내 매파적 스탠스 확대 등을 주시할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08%~1.20%, 2.05%~2.20% 범위로 전망 

■ 미국 CPI 및 Core CPI 추이



자료 : Bloomberg

■ 주요 국채 금리와 기간 중 변동폭



자료 : Bloomberg

## 외환: 인플레이션 논란發 변동성 확대에 유의

최 제 민 연구원(jeminchoi@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美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로 1,13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였다. 한편, 금번 물가급등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연준과 시장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下 수요증가, 공급 병목현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물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원/달러 환율] 美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 했으나 논란 일단락되며 상승세 반전

- 美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 속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까지 상승
- 또한,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7거래일 연속)되는 가운데 역송금 물량도 꾸준히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
  - 한편, 1,130원대에서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환율 상승은 억제
- 다만, 이후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되면서 환율 반락
  -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120원대 후반까지 하락


### ■ [국제 환율] 인플레이션發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로 달러화 약세 흐름 재개

- 달러화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부진 및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 약세 흐름을 지속
  -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거듭 강조
- 유로화는 유럽 내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 기대가 증대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경제 봉쇄조치 완화에 나서자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되며 강세를 시현
  - 1/4분기 유로존 GDP는 -0.6%(QoQ)를 기록해 침체구간에 진입하였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강화
- 위안화는 미국 물가지표 급등 충격에 따른 아시아 주식시장 불안 영향으로 리스크 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소폭 약세를 시현

■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 주요국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공급 병목현상 등이 맞물려 국내외 생산자·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은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
  - 시장에서는 4%대의 물가상승률 지속시 연준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WSJ)
- 연준 고위 관계자들과 시장참여자들은 최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
  - 주요 IB들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 내년초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미국채 수익률에도 반영
-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산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경제재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소지

■ 인플레이션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국내 펀더멘털 감안시 추가 상승압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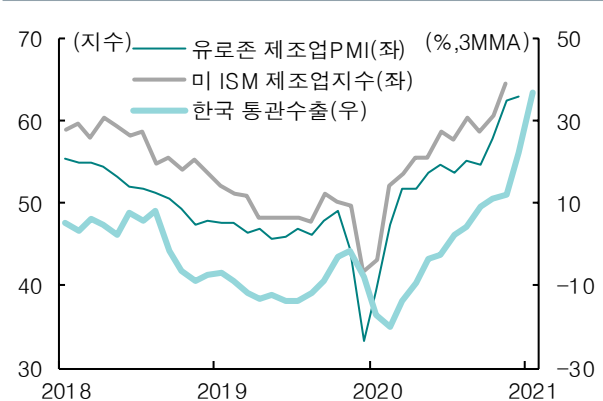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논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부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 한국의 5월(1~20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3.3% 증가(일평균 기준 +59.1%)
- 특히, 중국과 미국에 이어 유로존 경제도 빠르게 재개되고 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지속되면서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
  - 단, 물가 급등, 코로나 재확산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 원화와 달러화 지수 추이



주: 원화와 달러화 지수는 상승시 강세, 하락시 약세를 뜻함  
자료 : Bloomberg

■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경기와 한국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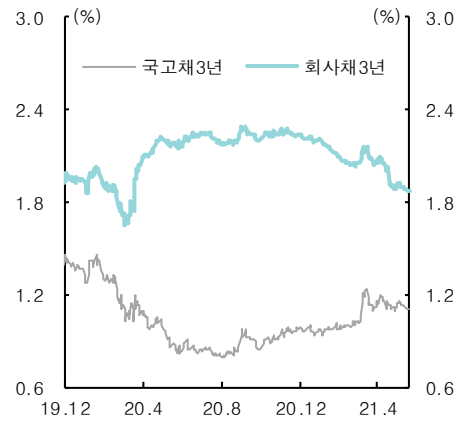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관세청 보도자료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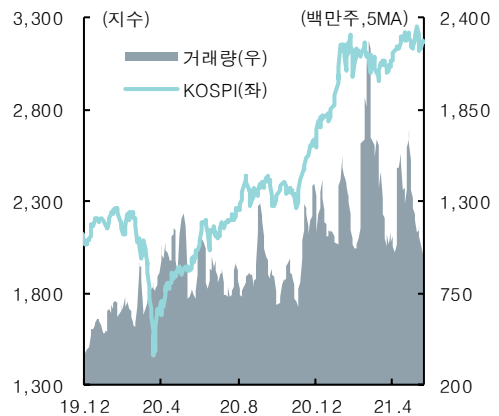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 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4월말	0.49	0.73	0.77	1.91	1.14	1.63
05월 13일	0.46	0.67	0.75	1.89	1.12	1.65
05월 14일	0.49	0.67	0.75	1.88	1.12	1.65
05월 17일	0.48	0.67	0.75	1.87	1.11	1.62
05월 18일	0.48	0.67	0.75	1.87	1.10	1.63
05월 20일	0.49	0.66	0.74	1.87	1.1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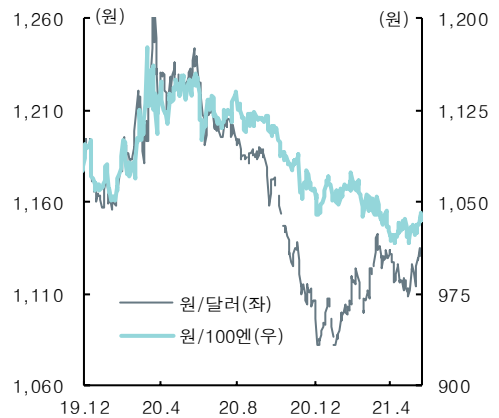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4월말	3,147.9	192,075	1,359	-5,652
05월 13일	3,122.1	210,598	1,096	-14,343
05월 14일	3,153.3	144,935	836	-4,198
05월 17일	3,134.5	145,525	771	-6,022
05월 18일	3,173.1	138,986	786	-3,500
05월 20일	3,162.3	137,197	774	-5,158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4월말	1,112.3	1,017.4	171.8	1,336.8
05월 13일	1,129.3	1,031.0	175.0	1,364.3
05월 14일	1,128.6	1,032.1	175.3	1,370.3
05월 17일	1,134.8	1,038.9	176.2	1,378.3
05월 18일	1,130.5	1,037.8	175.9	1,381.7
05월 20일	1,132.0	1,040.6	175.9	1,3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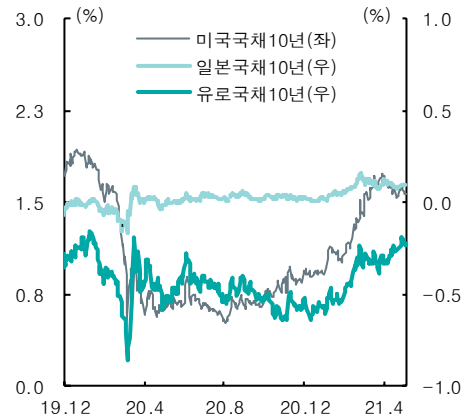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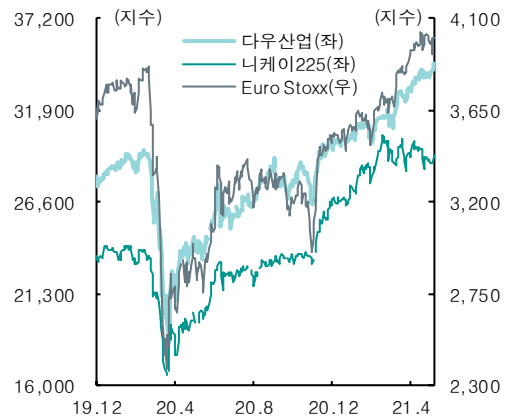
###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4월말	0.06	0.18	0.16	1.63	0.10	-0.20
05월 13일	0.06	0.16	0.15	1.66	0.09	-0.12
05월 14일	0.06	0.16	0.15	1.63	0.09	-0.13
05월 17일	0.06	0.15	0.15	1.65	0.09	-0.12
05월 18일	0.06	0.16	0.15	1.64	0.09	-0.10
05월 20일	0.06	0.15	0.15	1.63	0.09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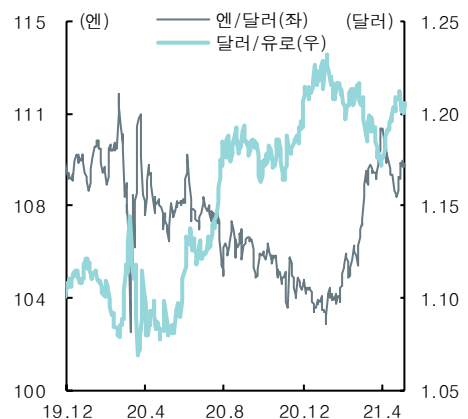
###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4월말	33,874.9	28,812.6	3,446.9	3,974.7
05월 13일	34,021.5	27,448.0	3,429.5	3,952.5
05월 14일	34,382.1	28,084.5	3,490.4	4,017.4
05월 17일	34,327.8	27,824.8	3,517.6	4,006.8
05월 18일	34,060.7	28,406.8	3,529.0	4,005.3
05월 20일	34,084.2	28,098.3	3,506.9	3,999.9



###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4월말	109.26	1.202	65.3	1,767.7
05월 13일	109.46	1.208	66.6	1,824.0
05월 14일	109.34	1.214	65.3	1,838.1
05월 17일	109.21	1.215	67.2	1,867.6
05월 18일	108.88	1.222	68.4	1,868.0
05월 20일	108.77	1.223	65.0	1,881.9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1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5월 22일 인쇄

2021년 5월 24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1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